

었다. 지금은 없을 것이다. 방이라고 할 수 없고 마루나 마찬가지였다. 방은 조그만 하꼬방이었다. 서넛이 잘 수 있다. 화장대도 있고 군인용 모후가 있었다. 여자들은 밥을 그 집에서 먹었다. 말하자면 여자들 살림집이다. 여자들은 화장을 했다.

군인들이 트럭으로 몇 차 와서는 한차에 한 50명쯤 실었다. 50명 중에는 반장이 있었다. 계급이 말하자면 상사쯤될까. 반장이 너는 요집, 너는 요집에서 놀라오니라하고 군인들을 배정해주었다. 나는 배정하고 군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 군인들은 돈 안줬을 것이다. 그것이 군인을 위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리고 군인은 돈이 없다.

한 15집은 될 것이다. 한 집에 여자들이 7, 8명은 있었다. 일본여자가 제일 많았고 오끼나와 여자가 있었다.

조선여자는 4명있었다. 내가 티니안 가기 전부터 있던 여자 두명하고, 내가 티니안에 가고 나서 온 여자 둘이 있었다. 늦게 온 여자 둘은 형제지간이었다. 小花(고하나)란 이름이 기억난다. 고향이 전남이었다. 군인들 노리개로 가라하면 을 여자가 누가 있겠는가? 고나는 공장에 간다그래서 형제가 같이 온 것이라고 했다. 서른몇명이 오다가 배가 파산되어서 다 죽고 형제만 살아남았다. 해방되고 두 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포로로 잡혀 와가지고는 형제들은 포로 남자를 얻었다. 남자랑 같이 살다가 한국으로 나왔다. 다 죽었을 것이다.

나는 군속이라 돈 내고 갔다. 하루 15원이었다. 돈은 여자에게 줬다. 여자가 받아 주인에게 줬을 것이다. 여자가 (콘돔등) 다 준비했다.

곳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것은 죽지만 않으면 전쟁 곳이 제일 재미있다. 비행기는 비행기끼리 싸우고 배는 배끼리 싸우고..... 죽은 시체를 밟고 다니기도 했다. 전장터라 실탄이 사람을 피해다녀야지 사람이 실탄을 피해다니지 못했다"

②티니안 한인회장에 의하면 티니안 부두가에 위안소가 있었다한다.

③피해자 복회(우리 성으로는 박씨이다. 이곳에서는 한국 성을 원주민 차모르족이들이 기요시(강) 싱(신) 킹(김)라고 부른다)할머니를 봤던 교민(여행안 내자, 서영애)을 만나다. 이미 돌아가신 그 분에게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 가족을 만날 수 없느냐고 묻자 서영애씨는 "이곳은 한국이 아니라서 무조건 찾아가 만날 수 없다"고 대답한다. 안내해준 유에숙 목사님이 기요시 할머니(한국인과 결혼한 차모르족 할머니, 92세)를 소개했지만 알지 못했다. 원주민 30% 정도 있다.

(3) 판.

① 우리나라 피해들이 있었던 위안소터 확인(원주민 Garcia, Bell, Palpmo씨 등 3인 증언)

1) 2곳은 시내에 있었으며, 당시에 건물은 서로 마주보며 있었다. 현재 한 곳은 공터로써 위안소 건물의 잔해가 남아있고(주 도로 Marine Drive의 EXON 주유소 옆), 다른 한 곳은 주 도로의 일부로 되어 있었다 (Garcia, Palpmo씨 증언).

2)다른 한곳은 동굴이었다.(Chalan E J. BELL Lonfit, Guam D.O.B. 1-2-38 의 집 뒤)

Bell씨가 살고 있는 Chalan E J. BELL Lonfit, Guam D.O.B. 1-2-38 집 뒤에는 동굴이 두 개 있었다(직접 확인했습). "그 동굴은 한국남자들과 원주민 차모

르남자들이 만들었다. 그 동굴에는 일본군인들 10~15명이 있었으며, 한국어자들이 와서 잠도 자고 밥도 하고 빨래도 했다.”(소유주 Bell씨 증언, 당시 벨씨는 6살이었다.).

3) 또한 괌 주청사에도 한국어성이 있었다.(해외희생자 추념사업회 6인으로 기재) 그러나 이곳은 추념사업회 자료를 확인한 외, 직접 현지 증언은 듣지는 못했다.

② 70년대 중반, 20년쯤 전에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는 현지교민을 만나다. 한국에서 온 누가 이야기해서 찾아왔다. 두 할머니를 만났었다. 한 할머니는 두 번 왔고 한 할머니는 한 번 밖에 안만났다. 한 할머니는 크지 않은 키에 뚱뚱하고 초라하며 어딘가 모르게 슬퍼보였다. 원주민과 결혼해 산 것 같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피했다고 한다. 그 분이 돌아가시고 3년 후에야 알았다. 그때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난다. (진용근, 교민신보 사장)

이 외에도 ③차모르족 위안부(피티지역), 일본인 위안소가 있던 것을 Garcia씨가 알려준다.(가르시아씨는 '뽕뽕야'라는 표현을 주로 썼다)

(4) 팔라우 공화국

1) 코로로

① 위안소 터 확인(Dnegeronger, 현지 팔라완 이 발음은 '네롱', Lebuu St.)

원주민, 라모나와 함께 한국, 일본, 오키나와 여자가 있었던 위안소를 확인했다. 바로 그 옆에는 일본인 '뽕뽕야'가 있는 난가이로와 난가이로 맞은 편으로 는 역시 일본 '뽕뽕야'인 쓰루노야가 있고, 도로 조금 떨어져서 호시우로라는 오키나와인 '뽕뽕야'가 있었다.

라모나는 일본헌병대장당번이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먹을 것도 잘 먹었다. 모모코라는 우리나라 피해자와 친구였다. 모모코는 전쟁이 심해지며 '히수이잔'으로 도망갔을 때, 산 속에서 만났던 사람이다. 모모코는 한국이름도 있었는데 기억이 없다. 산 속에는 모모코 외에도 수백명의 여자들이 있었다. 라모나 할머니는 아리랑, 가슴아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등을 자연스럽게 했다.

② 우리나라 여성을 본 현지인을 만나다.

전쟁 말기 산으로 피해갔을 때 임신한 채로 먹을 것만 찾아 헤매던 우리나라 젊은 여자를 만났던 원주민 할아버지의 증언을 듣다(신게오, 80세). 또한 신게오 할아버지는 라모나 할머니와 같은 위안소, 쓰루노야란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외에도 신고간 도구노야 미요시노 우라마찌 니시노야 스타라이란 이름을 말한다.

③ 실제 코로로에는 위안소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2) 페레리유

① 위안소터 확인(중국계 추장 Etibek의 증언, 1919년 생), 추장은 3곳의 위안소를 알려준다. 이곳은 나무 덩굴 무성한 숲 속에 있었다.

② 고지이야기(한국인 여성이 기군복을 입고 기관총을 쏘았다)는 현지에서 는 일본여성으로 알고 있었다.